

자서전 쓰기, 혹은 인생의 제16라운드

노만 주이슨 감독의 <허리케인 카터>

김경욱 | 소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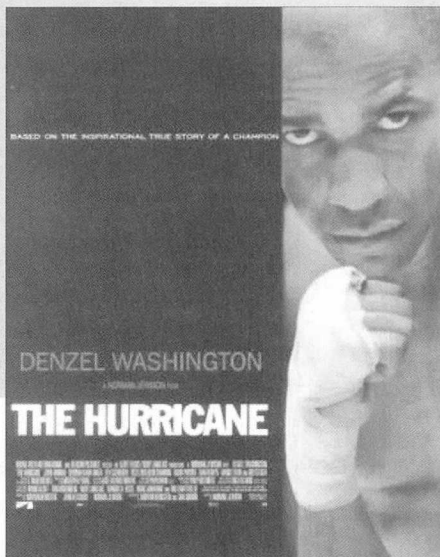
영화 <허리케인 카터>는 인종차별을 다룬 영화다. 소년시절부터 감방을 드나든 주인공은 인종적 편견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서전 쓰기와 복싱을 배운다. 주인공에게 세상은 때려 눕히지 않으면 안되는 사각의 링과 다를 바 없다. 살인죄로 복역중인 죄수가 된 그는 이제 글쓰기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찾는다. 글쓰기는 그에게 영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것이다.

글쓰기란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망이다. 라는 전제가 가능하다면 자서전만큼 글쓰기의 본질에 충실한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종종 글쓰기는 표현이라는 기본 명제를 넘어서기도 한다. 글을 쓰는 작업을 통해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 때 글쓰기는 단순한 표현 그 이상의 것이 되기도 한다. 복서의 역할을 해내기 위해 10kg이나 감량한 덴젤 워싱턴의 연기가 빛나는 영화 <허리케인 카터>를 두 번이나 보면서 나는 계속 하나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었다. 대체 글을 쓴다는 것, 글쓰기란 무엇인가?

전사이자 학자로 거듭나다

한 복서가 있다. 아니, 한 흑인 복서가 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감옥에서 보낸 뉴저지 빈민가 출신의 이 흑인 복서는 한때 세계 챔피언이기도 했다. 그러나 살인죄로 16년 동안 복역 중인 죄수가 됐다. 유죄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그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햇빛 한줄 들지 않는 지하 독방에 90일 동안이나 갇히면서까지 죄수복 입을 것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자신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결백하기 때문에 죄수복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이다.

소년 시절부터 감방을 드나들던 이 흑인 복서는 인종적 편견의 굴레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감옥에서 두가지를 배운다. 복싱과 글이 그것



"세상은 한 흑인 소년에게 분노를 심어줬고 그는 복싱을 통해 그 분노를 세상에 돌려줬다. 그리고 마침내 글쓰기를 통해 그 분노에서 해방됐다. 정의는 종종 분노에 의해 환기되기는 하지만 그것에 의해 달성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 불운한 흑인복서는 15라운드 종료 후에야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허리케인 카터의 글쓰기는 그 어떤 카운터 펀치보다 더 강한 힘을 싣고 있다."

이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그는 감옥에서 전사이자 학자가 된 것이다. 인종편견이 엄연히 존재하는 세상은 그에게 분노를 가르쳐 줬고 그는 복싱을 통해 그 분노를 고스란히 세상에 돌려줬던 것이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다고 생각하는 흑인 복서에게 인종적 편견으로 가득 찬 세상은 때려 눕히지 않으면 안되는 사각의 링과 전혀 다를 게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려눕힐 상대가 있는 사각의 링이 아닌 감방에서 그런 분노는 오히려 자신을 잃어매는 또 다른 죄사슬이 되고 만다.

교도소의 독방에는 허리케인 같은 주먹으로 때려눕힐 상대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글쓰기였다. 글을 쓰되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것. 바로 자서전 쓰기가 그것이다.

영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

제16라운드. 밥 딜런이 그의 노래에서 불운한 복서라고 말했던 그 루빈 허리케인 카터의 자서전. 아니 인생의 열여섯번째 라운드는 그렇게 시작된 것이다. 간수들의 눈을 피해 가면서 자서전 쓰기에 매달린 것은 단순히 자신의 억울함을 여론에 호소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분노의 노예가 된 자신을 구원하고 세상의 편견에서 영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것이다.

세상은 한 흑인 소년에게 분노를 심어줬고 그는 복싱을 통해 그 분노를 세상에 돌려줬다. 그리고 마침내 글쓰기를 통해 그 분노에서 해방됐다. 정의는 종종 분노에 의해 환기되기는 하지만 그것에 의해 달성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 불운한 흑인복서는 15라운드 종료 후에야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허리케인 카터의 글쓰기는 그 어떤 카운터 펀치보다 더 강한 힘을 싣고 있다. 그의 글에는 진실에 목말라하는, 정의를 추구하는 자의 열정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서전이 그의 석방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리고 그의 자서전에 감명 받은 흑인 소년과 캐나다 친구들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허리케인의 무죄가 입증되고 인종 편견에 사로잡힌 경찰에 의해 증거와 증언이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이 폭로된 것 또한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적어도 육체가 아닌 영혼을 이야기할 경우, 인생의 대부분을 감방과 사각의 링에서 보낸 이 흑인 복서는 글을 쓰는 순간부터 이미 자유를 얻게 됐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자기 인생의 진정한 챔피언이 된 것이다. 분노의 15라운드가 끝난 후 우정과 사랑의 제16라운드에야 비로소. ●